

2020학년도 전기과목 임용에 비사범대 재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제 개인적인 합격 후기가 전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0. 요약

- 1) 학습방법 - 교육학은 만점받기 힘들기 때문에 18점을 목표로 공부하자.
- 2) 학습방법 - 전공은 기출을 중요하게 공부하고 다양한 각도로 학습하자.
- 3) 학습방법 - 공교는 2002년 기출문제부터 지문까지 모두 학습하자.
- 4) 건강관리 -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 5) 마인드 컨트롤, 건강한 휴식 - 공부가 안되고 힘들면 과감하게 쉬자.
- 6) 생활습관 -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몸을 편하게 만들자.(※휴대폰을 집에 두자)
- 7) 학습플랜 -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자.

1. 학습 방법

1) 교육학

1-1) 학습 목표

교육학의 경우 저는 초수에 70%강의를 들었습니다. 1년 커리큘럼을 따랐지만 학업과 병행한 결과 교육학이 십 점 초반 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 대한 시험을 분석한 결과 교육학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자질구레한 문제, 즉 2~3점 정도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거나 운이 좋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외 **17~18점에는 모두 평범하게 공부하면 모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느꼈던 2019학년도에서는 리커트 척도법 문항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학에 대한 목표를 20점을 모두 맞추는 무리한 공부가 아닌 17~18점대로 설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1-2) 시험장 마인드

너무 자질구레한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대표적인 것들을 주로 외우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버릴 준비도 하여 이번 결과 비교츠키 문제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감하게 인정하고 버릴 수 있어 나머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생각은 '내가 틀리면 나머지 대부분 다 틀린다.'**입니다. 또한, **명칭이 틀려도 개념을 맞게 적어주면 명칭 외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점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저는 1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보다 학습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육학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나올지 출제자 이외 누구도 알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교육학을 모두 맞춰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맞추는 공부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월별 학습

월별 학습방법은 교육학의 경우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2020년 1,2월 강의와 작년 7,8월 강의를 들으며 개념공부를 하였고, 7월부터는 새로운 강사인 ㄱㅇㅅ의 모의고사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강의를 바꾼 이유는 동일한 강의를 들으니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을 느끼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하는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에 대한 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주에 1번 씩 교육학 백지노트를 작성**하여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지노트 작성했을 때 **팁은 너무 세세하게 작성하기보다는 큰 목차를 작성하여 어떤 키워드로 작성할지를 적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전공

1-1) 시험장 마인드

시험장에서 마인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풀 수 있는 문제는 실수하지 말**자였습니다. 학습하면서 문제를 풀 때 아는 것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개 계산 실수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식을 머리로 풀지 말고 꼭 손으로 풀었습니다. 손으로 계산 결과를 도출해내니 실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푼다.’**입니다. 이번에 전자기학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읽자마자 ‘내가 못 푼다.’라고 느끼고 손도 대지 않았고 못 풀었다는 것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줄였고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문제에 최대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실수를 점검했습니다. 이렇듯 전공 문제를 풀 때 못 풀겠다고 느끼면 일단 **풀 수 있는 문제에 최대한 집중하고 남는 시간에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푼다는 생각을 가지면 한결 수월하게 시험장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1-2) 기사 공부

저는 전공에서는 2월에서 6월까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를 전공공부와 병행하여 공부했습니다. 임용 전공공부를 하지 않고 기사공부를 한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2019년 한 해만 임용에 전념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떨어질 경우, 다른 회사나 학교 기간제를 알아 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사라는 자격증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만약 임용에 떨어지더라도 회사에 취직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취

업 준비에 힘을 덜 들게 되고, 학교 기간제 신청에서도 나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와 전자로 분리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기존에 있는 기사 시험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개 시험이 나누어지게 되면 기존의 시험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참고할 시험이 기사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전력공학 3상 문제와 피상전력에서 무효전력을 없애는 문제는 기사의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나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 공부에 대한 지겨움 방지였습니다. 작년에 저의 시험공부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제가 정말 힘을 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11월에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기 위해 초반에는 6월까지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사공부를 병행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임용 전공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임용 전공공부는 최우영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의고사강의까지 들었습니다.**

1-3) 기출분석 방법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번에 다르게 나왔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기로 나뉘어져서 심화된 몇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다 기출 기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출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해 나온 말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첨예도(Q) 문제도 기출에서 직렬로 나왔기 때문에 병렬에 대한 관점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시험이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최우영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사 공부에 집중되었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최우영 선생님께서 많이 제시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관점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느꼈던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너무 많은 문제, 학습자들에게 미리 고지되지 않는 갑자기 늘어나는 강의 수였는데 이런 부분 외에는 내용적인 측면은 정말 2020년 전기 임용 시험에 출제자 관점과 부합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3) 공교

공교는 5월부터 2019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요약한 10장의 자료를 계속 반복하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터디원이 만든 문제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준비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 준비한 자료를 공부하지 않았고 공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매일 1시간 씩 공부하여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 파슨스의 문제가 2000년대 나온 지문에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2002년에서부터 모조리 공교를 모아서 공부했습니다. 다만 2015 관련 문제가 아닌 이전 교육과정 문제는 제외하였

습니다. 또한 전공 기출문제처럼 스스로 관련 주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학습하여 이번에도 직소3, 공업교육사 등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 요약

- (1) 교육학 : 만점을 받는 공부보다는 18점을 목표로 학습하기
- (2) 전공 : 기출을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하기
- (3) 공교 : 2002년 문제부터 학습하면서 지문까지 확인하기

2. 건강관리

1) 운동의 필요성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는 9월까지 유도를 다녔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7시 반부터 유도를 하여 운동을 했습니다. 유도를 다닌 이유는 매일 앉아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소화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2) 운동의 중요성

이러한 악순환을 저녁 7시에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부에 대한 생각에 벗어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해져 잠을 잘 잘 수 있었고, 아침에는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매일 자기 전에 생각나는 시험결과에 대한 생각을 줄여주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도 운동을 계획에 넣는다면 1년이라는 시험 장기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의 경우 저는 9월 중순까지는 정해진 계획대로 살았고,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과감하게 쉬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부터는 조급함도 가지게 되고, 시험 중에 화장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때 저에게 매순간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세 가지 방법 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하는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쉬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쉬게 된 다음날은 공부를 더 열심히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는 날 외에 쉬게 될 경우, 미리 정한 휴식을 미리 쉬었다 생각하고 일요일에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떨어질 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떨어질 경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계속 생각한 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인정하거나 '**떨어지면 기간제하며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험 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경우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스터디원과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게 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두고 이야기하거나 집에 가면서 잠깐 이야기하게 될 때면 마음의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험장 날에 화장실 걱정의 경우, 저는 2020년에 기사 시험을 비롯해 많은 시험을 보았고 그로 인해 시험 날에는 긴장으로 몸이 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 다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 실제로도 긴장이 많이 되어 평소랑 다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5. 학습 플랜

1) 교육학

학습플랜은 대체로 **교육학은 강사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복습을 위해서 매주 백지 노트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스터디를 통해 학습을 했습니다.

2) 전공

전공의 경우에는 6월까지 전기기사 공부와 간단한 임용 전공에 대한 개념 공부를 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최우영 선생님의 강의와 병행하며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월별로 보았을 때는 기사를 제외하고 저만의 학습플랜이 강의 커리큘럼과 다른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월부터 주간, 일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계획을 세우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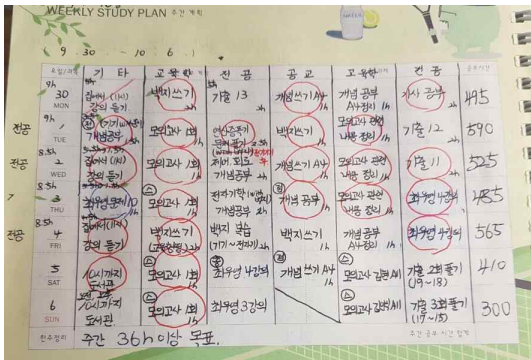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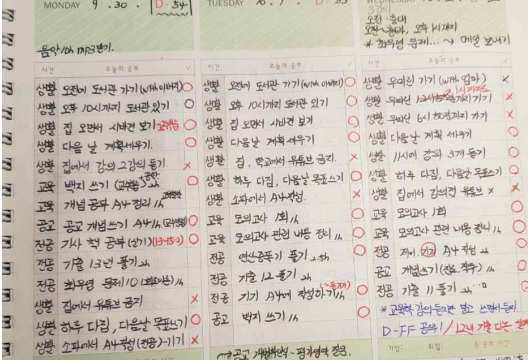
플래너를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설명하면 먼저 자신에 대한 계획을 일주일 대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매일 계획을 일주일 간 세워놓은 계획을 근거로 매일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처음 세우는 계획이니 러프하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자신이 학습하는 계획에 대한 시간을 꼭 적어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적는 이유는 대체로 우리는 계획을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워도 미뤄지게 되고, 계획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어 학습에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알기 위한 시행착오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자신이 얼마나 쉬는 시간이 필요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7시까지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인 것을 확인**하여 이 시간대로는 8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잘되는 날은 쉬는 시간도 줄여져 10시간도 할 수 있었지만 안 되는 날은 6시간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시간을 적어두면 자신이 그 계획에 대한 학습 가능 시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백지 노트를 1시간으로 계획했지만 2시간이 걸릴 경우 다음 계획에는 2시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더 정확하게 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계획의 효과 및 플래너 예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학습해 나가면서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원래 목표한 학습 시간계획보다 더 학습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휴식을 취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썼던 플래너의 예시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계획	일간 계획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루에 학습 가능한 시간을 적고, 그 시간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을 예상하여 적어줍니다.	아래 보면, 매시간 공부를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분 단위까지 적는게 귀찮아서 5분 단위로 끊었습니다.
(예) 월요일 9시간 → 백지(2h), 기출13년(2h), 공교(1h), 교육학 개념 공부(1h), 기사공부(2h)	예를 들면, 8:25~8:55 : 백지 공부 20분 9:10~10:00 : 백지 공부 50분 10:20~10:40: 교육학 공부 20분

<p>(10월에 기사를 공부한 이유는 시험에 기사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p>→ 실제로 학습한 시간 : 495분</p> <p>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단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합니다.</p>	<p>이렇게 적어두고 백지 시간이 계획보다 줄어들었으므로 다음 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하여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지금 쉬는 시간이 많은데 왜 많은지 적어두어 그 시간대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 효율을 높여나갔습니다.</p>
 <p>주간 36h 이상 목표</p>	 <p>주간 36h 이상 목표</p>

6. 생활 습관

1-1) 9월 까지 생활 습관

저는 9월까지의 평일 생활 습관을 오전 8시 반~ 오후 7시까지 공부하였고, 오후 7시 이후부터는 운동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모두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학식을 먹어 점심, 저녁시간 1시간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하여 주말 오전에 모두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공의 경우 스터디가 구하기 힘들어서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모두 교육학 스터디를 했는데, 무언가 준비해서 알려주는 스터디가 아닌 와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공부하는 생활 스터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어나기 싫은 것을 스터디로 대체하여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1-2) 10, 11월 생활 습관

10월에서 11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때 같이 스터디하는 분과 생활 스터디를 겸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정하고, 저녁은 5시부터 7시까지 하여, 저녁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생활을 가졌던 것이 끝까지 공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3) 일찍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 습관을 오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면 무언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출근하실 때 일어나서 같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서관에 가서 오전만 공부하고 오는 날도 있었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저를 좀 더 학습에 의욕적이게** 만들기 좋았고, 부모님은 평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평일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기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는 스터디 시간을 주말 오전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게 되니 습관이 형성되고 점차 일어나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을 저의 습관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1-4) 오래 앉는 방법

저는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 효과가 좋았던 것은 목표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을 할 때 내가 교육학 문제 5개 다 적고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조금씩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정말 1시간정도나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과제를 목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학습과는 별개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1-5) 스마트폰 관리 방법

공부하면서 스마트폰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 멈추는 의지가 약해 그냥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스터디 하는 날을 제외하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다니니 도서관에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뺏는 일이 없고 다른 생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제점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 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아침에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폰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켜서 보기도 했지만 다시 켜는 것이 귀찮아져서 잘 안 보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집에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또한 적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인강은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서 학습하고, 노래는 mp3를 사서 들고 다니니 스마트폰이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1-6) 결론

이렇게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점차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습관을 형성해 나가면서 반복하게 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쉬어지게 되니 남이 볼 때 힘든 생활 습관이 자신에게는 힘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매일 반복하고, 점차 늘려나가면 힘든 생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건강한 휴식

저는 건강한 휴식은 쉬고 싶은 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고 싶은 날은 공부하면서 자주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일에 갑자기 공부가 되지 않으면 3번 동안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세 번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5분만 더 공부해보자' 입니다. 5분만 더 공부하자라고 생각하고 5분 만 더 하게 되면 공부에 탄력이 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견디기 쉬운 시간이라 공부를 더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둘 째, '문제를 풀자' 입니다. 대개 머리로 공부하거나, 개념공부할 때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는데 예제나 주어진 문제를 풀 때 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셋 째, '인강을 보자' 입니다. 인강을 보게 되면 정해진 시간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건강한 휴식은 자신이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정신적으로 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어찌면 일요일일 수 있고, 평일 낮이 될 수 있고 평일 저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 다시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쉬게 될 것이라고 걱정이 되어도 자신이 세운 주간 계획을 보게 되면 이틀을 넘어 쉬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 슬럼프 극복

1) 2020년에 슬럼프가 없는 이유

사실 저는 이번에 공부할 때 슬럼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모르게 왔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슬럼프라고 하면 1주일 이상 공부하기 힘들어서 공부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올해에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건강한 휴식 덕분에 제가 쉬고 싶다고 느끼면 바로 쉬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늦잠 자면서 쉬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침에 너무 몸이 피곤하다 느끼면 과감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늦잠을 자면서 하루를 그냥 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플래너를 보니 10월에도 힘들면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모님께 미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쉬는 것이 부모님이 제대로 인지해야 부모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통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원과의 생활 스터디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시작한 생활 스터디는 힘들어도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심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스터디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나중에는 그 시간에 기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슬럼프가 온 것 같다고 말하면 서로 공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 시험이 끝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유튜브 동영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는 합격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올해 무조건 합격 할 거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시험에 운이 없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명확해져서 슬럼프가 심하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도 만약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두고, 열심히 해도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좀 신경 쓴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초수 때 슬럼프

하지만 사실 저도 올해는 슬럼프가 크게 없었지만, 초수 때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업과 졸업준비를 같이하다가 보니 9월 중순 부터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있는 길고양이 보러 다니거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공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많아져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슬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부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슬럼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슬럼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기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보다는 운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문제 중 기계문화도 이를 언급한 강사를 만나 맞출 수 있었고, 전공과목에서도 최우영 선생님을 만나 좋은 성적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전자통신에서 전기, 전자로 나누어진 과목에서 최우영 선생님의 예측이 적중했고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1차 성적을 받았습니다. 최우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가 너무 많아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 불만이 많았는데 바뀐 시험에서 벡 부스터를 시작으로 많은 문제가 적중이 되어 감사함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강으로 학습하여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